

조광요턴, 선박도료 부산공장 가동

400억원 투입 4000만리터 생산설비 건설 ... 내수·수출시장 공략

세계적인 도료 메이저 요턴과 조광페인트의 합작기업 조광요턴이 부산 소재 신규공장을 본격 가동했다.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양성민 조광페인트 회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아드 글레디치 요턴그룹 회장, 디드릭 톤셋 주한 노르웨이 대사 등이 참석했다.

조광요턴은 외국인투자지역 4만6500㎡ 부지에 요턴이 2000만달러(한화 280억원), 조광페인트가 2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선박도료 4000만리터 생산설비를 건설했다.

조광요턴은 1988년에 경상남도 양산시에 설립됐으며 부산공장 준공을 계기로 모든 생산설비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부산공장에서는 현재 2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여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어서 부산시의 고용창출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광요턴이 생산하는 선박도료는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주요 조선기업에 공급되며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예정으로 조광요턴은 2006년 5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37개국에 71개의 현지법인과 7200명의 직원을 둔 요턴은 2008년 매출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도료 전문기업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31>